

##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가정과교육의 미래방향 탐색: ‘웰빙(Well-Being)교육’의 담론 고찰을 중심으로

왕석순<sup>†</sup>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A Study on the Futur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the With/Post COVID-19 Era: Focused on the Review of ‘Well-Being Education’

Wang, Seok-Soon<sup>†</sup>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value home economics education should pursue to be established as an essential subject in the ‘with-/post Covid-19 er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To this end, first of all, changes in the future society symbolized by the with-/post- Covid-19 era were diagnosed through literature review. Moreover,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 and Korea’s ‘Educational Vision 2045’, which identified the purpose of education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uture, were considered. Furthermore, the teleology of education of John White, a British educational philosopher, was contemplated.

As a result, the purpose of education for the future society is considered to be changing toward the well-being of society and individuals, and effor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a well-being subject are being made in various countries for this purpose. While several a number of strategies are pos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well-being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easiest way is to strengthen home economics education that already exists as a subject. In addition, the main valu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 an essential subject in the with-/post-Covid-19 era is evaluated to lie in the fact that this subject helped society and individuals cultivate diverse competencies necessary to pursue well-being.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 conceptual framework necessary to develop a discourse on home economics education as ‘happiness and well-being education.’

Additionally, a conceptual framework describing the unique thinking and execution process that learners will represent in the course of learning of home economics that implements well-being education is suggested. In the follow-up studies, it is expected that the discourse on well-being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will be verified by empirical studies.

Key words: 가정과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위드/포스트 코로나 사회(with-/post- Covid-19 era),  
웰빙교육 담론(discourse of well-being education), 한국의 교육 2045 비전(education 2045 vision in Korea),  
OECD 교육 2030(OECD learning compass 2030)

<sup>†</sup> 교신저자: Wang, Seok-Soon,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55069, Republic of Korea  
Tel: +82-63-220-2331, Fax: +82-63-220-2053, E-mail: wangwhite@jj.ac.kr

## I. 시작하는 이야기: 위드/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대응

무협영화 속의 자객(刺客)처럼 조용하나, 너무 빠르고 무자비하게 침투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현재까지도 여전히 어려운 분투(奮鬪)중에 있다. 그러나 백신개발과 접종으로 인한 엔데믹(endemic)화는 미래에도 코로나19와 유사한 또다른 위협이 상시 예측되므로, 인류는 코로나 종식(Post)의 삶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With)라는 위드 코로나로서 시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사회의 변화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래 사회가 더 빨리 앞당겨지게 되었다는 평가이다(Park & Glenn, 2020a, 2020b). 본래적으로 미래는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가지지만, 특히 지나치게 빠르게 전개되는 기술문명의 변화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변화로 인해 미래사회는 인간의 삶과 일의 양식에 큰 축의 전환이 야기될 것(Guillen, 2020/2020)이라는 점이다. 이와같은 ‘축의 전환’을 일컫는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인류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공지능의 진보로 더욱 가까워진 지구촌의 인류 공존의 안전이 더욱 강조(Park & Glenn, 2020a, 2020b)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미래 사회에서는 원격교육과 스마트 오피스의 확대를 “바깥에서 활동하기보다 집에서 놀이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인 ‘홈 루덴스(Home Ludens)’가 주류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MunHwa Ilbo, 2020, May 4), 마치 산업사회 이전의 인류에서처럼 집에서의 생활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미래를 앞당긴 사회적 변화를 가장 많이 체감한 분야를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개발이 되었지만 상용에는 다가서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의 확대는 대표적인 앞당겨진 미래 교육의 모습이다. 그런데 Kim(2020)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대와 관련해서 산업계의 요구 때문에 코딩교육이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코딩교육이 미래의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안전강박에 의한 불신사회를 벗어나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생교육이 미래교육의 방향이라 강조하며, 마을 교육공동체 교육을

강조했다.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Kim(2020)이 주장한 공생교육의 방향은, 지식 전달 및 취업 준비 기관으로서의 학교 역할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White(1990/2009, 2011/2014)의 견해와 일치한다. 물론 White(1990/2009, 2011/2014)는 ‘웰빙(Well Being)’을 교육의 목적으로 강조했고, Kim(2020)은 코로나 이후 학교가 ‘공생교육’을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문명의 변혁으로 도래할 큰 축의 사회적 전환은, 자연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홈 루덴스’의 인류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도래할 미래 사회에서는 인류의 ‘상호 돌봄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돌봄과 배려를 중심으로 인류 전체의 공생을 위해 준비하는 예비 기관이 되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같은 인류의 상호 돌봄은 일방향이 아니며, 자기배려와 타자배려의 양방향적인 기술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웰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OECD가 교육의 목적으로 표방한 웰빙과 White(1990/2009, 2011/2014)의 웰빙 교육의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결과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방향성 제시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예측되는 새로운 위드/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가정과교육이 공통교육과정에서 필수교과로서의 가치와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여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우리는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모호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종종 왔던 길을 돌아가서 원점에서 시작하곤 한다. 따라서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한 해답은, “교육이란 무엇인가? 왜 교육을 하는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은 ‘교육 그 자체’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며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문헌들을 분석하는 것에서 해답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이 연구는 범세계적인 미래 교육의 대응에 해당하는 OECD의 ‘OECD교육 2030’프로젝트와, 1995년 발표됐던 ‘5·31교육개혁’에 대응하는 Choi, Kim과 Choi(2020)의 연구(‘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 이하 ‘교육비전 2045와 전략’)를 고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히, 지식 위주의 공부를 통해 취업 준비 기관에 방점을 찍어 온 근대 이후의 교육을 비판하며, 웰빙을 교육의 목적으로 강조한 White(1990/

2009, 2011/2014)의 교육의 목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미래 사회의 교육목적의 고찰 결과를 활용하여, 교과인 가정과교육이 미래교육의 목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또, 교육의 전체 목적 달성을 위해 전체 교육과정에서 가정과교육이 필수교과로서의 지위를 지속시키며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의 결과를 이론적 개념들로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II 21세기 미래교육 전망을 위한 두 가지의 축: 'OECD 교육 2030', 그리고 한국의 '교육비전 2045와 전략'에서 배운다.

### 1.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미래교육의 방향을 전망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연구는 회원국 37개국의 국제경제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가 201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OECD Education 2030, 이하 'OECD 교육 2030')의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1주기: 2015~2018, 2주기: 2019~)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선정된 미래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방법(교육체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hoi et al., 2017). 우리나라는 2016년도부터 이 사업에 참여를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의 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미래 교육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하고(Choi et al., 2019), 특히 우리나라를 벗어나 전 세계적인 교육의 방향을 탐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OECD가 'DeSeCo 2.0' 사업으로 칭하는 바와 같이(Lee, 2019), 'OECD 교육 2030'프로젝트의 토대가 된 사업은 OECD DeSeCo 사업(1997-2003)이다. OECD DeSeCo 사업은 교육 분야에서 역량에 대한 관심을 본격화시켰고, 미래의 역량 규명과 역량

개념들 개발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국제적인 시도였다고 평가받고 있는 프로젝트이다(Choi et al., 201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OECD 교육 2030 사업」을 21세기 교육의 전망을 탐색하기 위한 중요한 축의 하나로 고찰한다.

'OECD 교육 2030' 1주기 사업의 주요 결과물인 OECD 학습개념들이 현재(2021)의 모습을 띄기 시작한 것은 2017년 5월에 실시된 제 5차 IWG 회의에서 부터이지만, 최종안(학습나침반 2030, Learning Compass 2030)은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개최된(2019. 5. 22.-5. 24.) 제 9차 비공식 작업 그룹(IWG, Informal Working Group)회의에서 발표되었다(Figure 1 참조). 최종안에서는 시각적으로 학습개념들을 나침반의 모습으로 은유화(metaphor)시켜 의미를 드러내도록 강조했고, 교육의 지향점(Well-Being)과 학생 행위주체성과 협력적 행위주체성을 학습 나침반의 배경에 제시해서, 학생 에이전시(student agency)를 '교육 2030 학습 나침반'의 중심으로 명시했다(OECD,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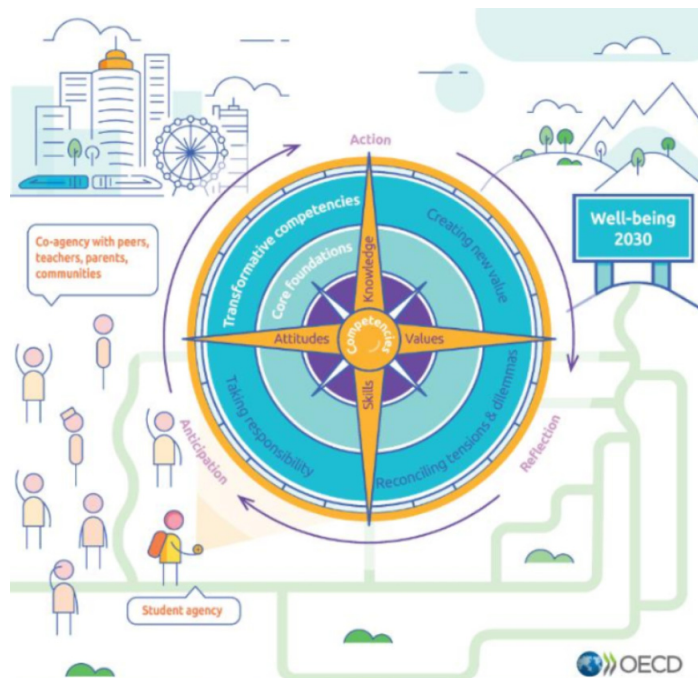
그리고, 역량의 범주인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세부 영역은 제시하지 않음)와 교육의 지향점으로 가는데 요구되는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3가지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같은 역량을 개발하는 A-A-R의 역량개발 사이클(예측(Anticipation)-행동(Action)-성찰(Reflection)을 나침반에 명시했다. '학습 나침반 2030'의 주요 구성요소와 세부영역을 나타내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OECD 교육 2030'은 현행의 2015개정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2022 차기 교육과정이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방식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OECD는 2030년의 미래사회의 특징을 예측 불가능한 사회로 전망하며, 미래 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습자가 교육을 받는 궁극적 목적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스스로 웰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웰빙의 교육목적은 '삶의 질 향상'을 교과와 성격 및 목적으로 전통적으로 표방해온 가정과교육 전공자들에게는 분명 익숙한 교육의 방향이다.

사실 근대 이후 인류의 교육의 목적은 학문과 지식 중심의 논리, 경제 발전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OECD가 'Well-Being'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한 대변

혁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몰되어 온 한국의 교육에 과연 무엇이 새로운 교육목적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교육 담론(narrative 또는 discourse)을 요구한다. 특히, 삶을 기반으로 한 생활교과로서 생활의 질 향상을 통한 개인과 가족의 행복 추구의 역량 함양을 교과的重要 성격으로 설정해 온 가정과교육(Wang, 2016)에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우선,

웰빙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한 전체 교육과정에서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교과의 담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교육의 미래 방향 설정에서 웰빙의 교육목적을 교과에 담아낼 수 있는 교과의 이론적인 개념틀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었다.



Source: OECD(2021).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

Figure 1. OECD learning compass 2030

Table 1. Key components and sub-areas of 'OECD learning compass 2030'

Sub-areas	Key components
교육의 목적	개인과 사회의 웰빙
역량의 범주	지식      학문적, 간학문적, 인식론적, 절차적 지식 기능      인지적·메타인지적 기능, 사회적·정서적 기능, 신체적·실천적 기능 태도와 가치      개인적, 지역적, 사회적, 지구적 태도와 가치
핵심기초	문해력, 수리력, 데이터 리터러시, 건강 리터러시
변혁적 역량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
역량개발 사이클	예측(Anticipation)-행동(Action)-성찰(Reflection)(A-A-R)
구성원의 역할 및 상호작용	학생 행위주체자, 협력적 행위주체자(또래, 교사, 부모, 지역사회)

Source: Choi et al.(2019). Restructured p. 43

## 2. 한국의 '교육비전 2045와 전략'

### 1) 개요

1995년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은 우리나라의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교육 대책'이었는데, 정보화, 세계화 사회로 진행되던 20세기 말에 발표되어 상당기간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정책이다. 예로 현재 확대 실시되고 있는 학생부 전형제도의 근간이 된 '학교생활기록부 제도', 교과와 절대평가 실시를 위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의 각 교과별 개발, 학습과정으로서 평가 방법 강화를 위해 각 교과에 도입되었던 수행평가 제도, 정보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강조됐던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강화 등이다. 물론 이들 교육 정책들은 교과와의 하나였던 가정과교육에도 폭넓게 적용됐던 것이 사실이다. 현 시점(2021년)에서는 과정평가가 강조, 온라인 학습이나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등으로 구체적인 용어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5·31 교육개혁'에서 제시됐던 여러 교육 정책들은 현재 시점의 교실 현장에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5·31 교육개혁'이 한 세대에 해당하는 25여 전의 정책이고, 특히 정보화를 뛰어넘어 제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사진 마련을 위해 정부의 여러 연구단체의 연합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새로운 한국 교육의 청사진 제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해당 연구(Choi et al., 2020)는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 교육 2045 비전과 전략 수립' (이하 '교육비전 2045와 전략'으로 표기)으로, 현 시점인 2021년에는 2차년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Choi 외(2020) 연구를 연구의 분석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연구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교육 연구기관을 망라하며 통합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둘째, 해당연구가 '5·31 교육개혁'의 한계를 넘어 한국형 미래 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구가 마치 '5·31 교육개혁'과 같이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까지를 총망라하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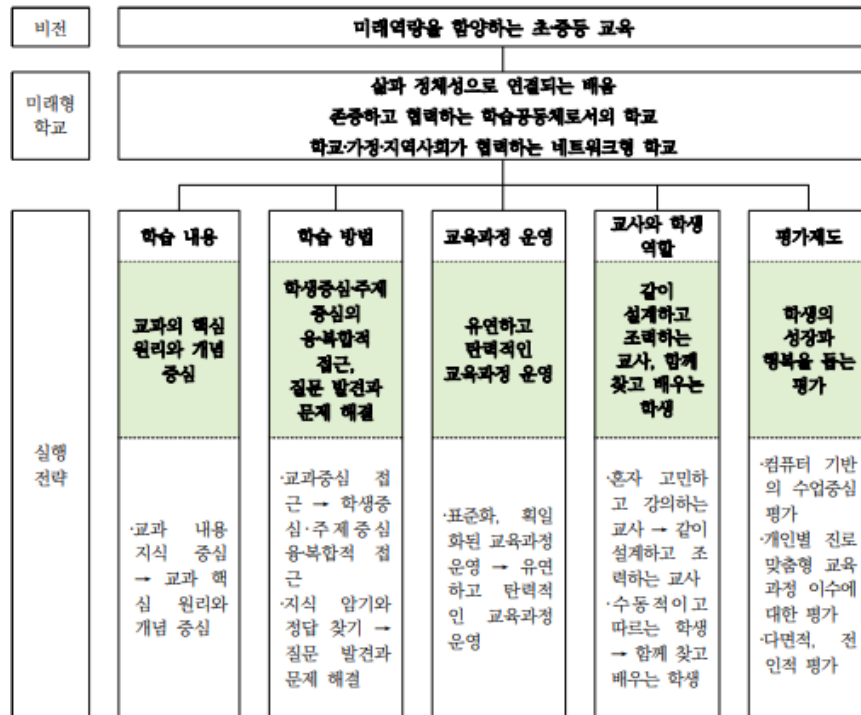
정책의 패키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이 연구는 중등교육에 중점을 둔 연구이지만, 중등교육도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과의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Choi 외(2020) 연구를 분석의 기준으로 고찰했다.

### 2) '교육 비전 2045와 전략'에서 제시한 초·중등교육의 개선 방향

Choi 외(2020)는 미래에 다가올 2045년은, 우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된 지 100년을 맞는 시점이 되며, 둘째, 20세기 후반(1995년)에 마련된 '5·31 교육개혁'이 마련된 지 50년이 지나는 시점으로, 세계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속화 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가 전망되는 시점으로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하는 시대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hoi 외(2020)는 이와같은 시대적 의미를 가지는 2045년의 한국형 교육 비전을 다음의 <Figure 2>로 제시했다.

Choi 외(2020)의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 초·중등교육의 비전과 미래형 학교가 반영하고 있는 담론은 'OECD 교육 2030'에서 상정한 미래 사회의 특성과 유사하다. OECD에서 전망한 미래사회와 마찬가지로 Choi 외(2020)의 연구에서도 미래사회는 변화무쌍하고(volatility), 불확실하며(uncertainty), 복잡하고(complex), 모호한(ambiguity) 특성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능력과는 상이한 능력과 인재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미래 초·중등교육에서 지향할 역량교육은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위한 것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즉,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학생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처하면서, 개인과 사회를 위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Choi et al., 2020)고 주장했다. 이같은 '교육비전 2045'의 교육목적은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삶과 정체성으로 연결되는 배움을 강조하는 학교를 제시한 'OECD 교육 2030'의 교육의 지향점인 웰빙 지향의 교육 목적과 연계되어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정부(Joint Ministries, 2020)는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관계부처 합동의 문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인



Source: Choi et al.(2020). p. 610

Figure 2. Improvement direc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o foster future competencies

간에 집중하는 교육'뿐 아니라 시대에 부합하고 기술과 결합하는 교육으로 인공지능 교육과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같은 정부의 발표는, '교육 비전 2045와 전략'은 물론이고 'OECD 교육 2030'의 교육목적과 거리가 크다. Choi 외(2020)는 미래사회가 인공지능 및 생체 기술 등의 발전과 함께 상당히 복잡한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므로, '인간다움은 무엇인가?'와 같은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미래 사회의 교육에서는 오히려 정서, 공감, 인성, 관계, 성찰 등과 같은 '인간다움'이나 '사회·정서적 역량'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사회까지의 개인적 능력은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가족의 변영과 안녕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초연결사회인 미래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됨을 경고했다. 따라서 미래형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원(친구, 동료, 이웃)이 되기 위한 학습이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초연결사회가 되는 미래사회의 교육에서 학습자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의 학습을 보다 강조한 Choi 외(2020)의 연구는, 이러한 역량의 교육에서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났던 정서 및 인성과 관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설명하면, Choi 외(2020)의 주장은 산업혁명 이후의 지난 150여 년간의 인류의 학교교육의 방향과 매우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이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관계형성능력'을 중요한 교과의 역량으로 고시하는 등 인간의 사회, 정서적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교과로서의 역할을 전체 교육과정에서 담당해 온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Wang, 2016)의 미래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III White의 '웰빙(Well-Being)' 개념과 '웰빙교육'의 담론 고찰

#### 1. 개요

‘OECD 교육 2030’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OECD 학습 나침반 2030’에서 미래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비전)를 명료화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목적을 개인과 사회의 ‘웰빙(Well-Being)’으로 설정한 점이다. OECD는 오랫동안 교육의 목적을 지배해 온 취업 중심의 경제발전 논리가 미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OECD, 2021), 교육에 대한 새로운 담론(narrative 또는 discourse)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영국 런던대학교의 교육철학자인 White는 교육목적으로 ‘잘 살’의 개념, 즉 ‘웰빙’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학자 중 한명이다(Jung, 2013). White의 이론의 요점은 모든 사람을 위한 풍부하고 충실한 교육을 교육목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20세기 이후 피터스(Peters)와 허스트(Hirst)에 이르기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이론으로 자리 잡아 온 자유교육 이론(Yoo, 2001, 2004, 2006)의 아이디어로 대변되는 현대 교육은, 지식 그 자체의 탐구를 교육이라고 발전시켜 왔다. White는 이를 전면으로 비판하는 이론이다. 그렇다고 하여 White의 교육목적이 형식적 도야이론과 대척점을 이루는 생활적응이론으로 분류해서는 곤란하다. White(1990/2009)는 선정된 일부 소수의 학생들, 주로 추상성이 높은 형식적 지식 개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소수의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잘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식 위주의 교육만이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Kim, 2014). 즉, White(1990/2009)는 ‘지식’(두이의 ‘경험’을 포함함)은 인간의 잘 살, 이타심, 자율성 등에 관한 보다 넓은 윤리적 목적의 하위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할 뿐이다.

자유교육 이론의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Lee, 1994), 그런데, 아

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은 노예가 아닌 시민계급의 자유인을 위한 것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여유를 향유할 수 있는 신분인 시민계급만의 것이라는 점(Lee, 1994)을 상기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교육은 사회적 생산성 또는 유용성과 무관한 것으로, 세계와 사물을 관조하고 정치적·도덕적 행위를 성립시키는 이성적 활동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인간의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며, 그 자체로서 최고선(最高善)의 경지에 있는 것이므로, 더 이상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수단일 수 없는 궁극적 가치인 ‘행복’의 상태이기에 그 자체로서 가치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을 관조하는 이성의 활동은 그 자체로서 가치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는 신체와 욕정, 그리고 필요한 습관의 형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훈련이 끝난 수준의 자유교육에서 가능한 것이다(Lee, 1994). 보편교육으로 확대된 현대 교육환경에서 초등 및 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목적을 설정할 경우에, 피터스와 허스트가 주장해 온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교육목적을 21세기 교육현장에서는 반드시 재고(再考)해야 할 이유이다. White(1990/2009)의 경우에도 고등교육이 아닌 초, 중등교육에서는 피터스로 대변되는 지식 그 자체의 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교과로 자리 잡으면서 교육의 전체를 차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웰빙은 우리말 사전에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로 정의되어 있고(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21), Oxford Learner’s Dictionaries(2021)에서는 ‘일반적인 건강과 행복’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웰빙 개념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02년 말경으로, 초기 웰빙의 개념은 물질적 가치나 명예를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보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균형있는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한 유형을 의미하는 것에 가까웠다(Yoo, 2006). 따라서 웰빙은 건강이나 보건, 심리학, 소비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져 오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웰빙을 설명하는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웰빙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왜 교육 분야에서 ‘웰빙교육’의 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웰빙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교

육적 관점에서 웰빙을 분석한 연구가 기초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OECD 교육 2030’ 및 교육철학자인 White(1990/2009, 2011/2014)의 웰빙의 개념에 집중하여 웰빙의 고찰을 전개하여,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이 왜 ‘웰빙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가와 관련한 교육 철학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White의 ‘웰빙(Well-Being)’ 개념

일반적으로 웰빙(well-being) 또는 ‘flourishing’은 ‘좋은 삶’, ‘잘 삶’, 또는 ‘풍요로운 삶’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그리스어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의 영어번역에 해당한다(Yoo, 2013). <Table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웰빙이 가지는 다학제적 성격으로 인해서 웰빙은 여러 연구 분야에서 연구해 왔기에 그 정의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living well)’인가에 초점을 두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는 ‘living well’을 위한 접근은 크게 ‘feeling well’과 ‘doing well’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의 관점인 ‘feeling well’은 삶의 목적을 ‘즐거움(pleasure)’ 추구에 두는 ‘헤도닉(hedonic)’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관점인 ‘doing well’은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닉(eudaimonic)’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Park & Woo, 2021). 최근에 ‘OECD 교육 2030’에서 미래교육의 공동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의 개념도, 에우다이모니아

적 관점의 웰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웰빙 추구하고 동시에 공동체의 웰빙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이 학교교육의 목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이다(Park & Woo, 2021).

White(1990/2009, 2011/2014)의 웰빙교육에 대한 이론은 1990년 저서인 ‘Education and the Good Life’가 ‘교육목적론’(White, 1990/2009)으로, 2011년의 저서인 ‘Exploring Well-Being in School’은 ‘잘삶의 탐색’이라는 번역서(White, 2011/2014)로 출간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돼 있다. Yoo(2013)는 ‘웰빙을 위한 교육’이 White의 교육에 관한 주장을 함축적으로 드러내주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는데, White의 웰빙 개념의 중심은 ‘검증된 욕구(informed-desire)’이므로(Kim, 2009, 2014), 웰빙을 위한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White의 ‘검증된 욕구’를 이해해야 한다. White의 ‘검증된 욕구’란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행복이 성취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Kim, 2009, 2014). 이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White 역시 웰빙의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닉(eudaimonic)’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Kim(2009, 2014)은 White의 ‘검증받은 욕구(informed-desire)’란, “욕구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경험적 정보에 근거를 둔,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욕구”로서 사회나 문화에 의해서 정제되고 걸러진 욕구로 해석했다. 또, “검증된 욕구를 따르는 잘 삶은 자율적인 삶의 방식과 비자율적인 삶의 방식이 모두 포함”되지만,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개인의 욕구에는 이미 문화적으로 정제된 가치가 반영되어

Table 2. Different approaches to the concept of ‘Living well’

웰빙: ‘Living Well’			
구분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에우다이모닉 웰빙 (Eudaimonic Well-Being)	White의 웰빙
초점	Feeling Well/결과 중시	Doing Well/과정 중시	교육의 목적
주요가치	happiness, pleasure, joy	growth, purpose, engagement	더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
주요 구성요소	삶의 만족도	자율성	검증된 욕구 충족
	긍정적 느낌	유능성	자율성
	부정적 느낌	관계성	이타적 성향

Source: Park & Woo(2021). p. 1461

Kim(2009, 2014); Hong & Yoo(2016). Restructured.



있고, 개인은 대부분 자신 안에서 갈등하는 욕구위계를 스스로 따져보아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증된 욕구에 자율성도 포함한다(Hong & Yoo, 2016). 즉, White의 웰빙의 개념에는 순전히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검증되지 않은 사적인 욕구를 따르는 삶에서 발휘되는 극단적 이기주의나 무기력함을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 '자율성'이 포함된다(Hong & Yoo, 2016).

또, White의 웰빙의 개념에는 이타적 성향을 구성요소로 포함한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웰빙의 개념은 미디어와 상업주의에 의해 소비문화에 치중된 개념으로 왜곡돼 와서(Lee, 2004), 대중들에게는 <Table 2>에서 'feeling well'의 관점으로 해석돼 온 경향을 보인다. 이에 교육목적으로서 '잘 삶'의 개념을 해명하려는 탐구들에서도 개인의 '잘 삶'을 이타주의와 다소 대립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다(Hong & Yoo, 2016). 그런데 White의 '웰빙(Well-Being)'의 개념은 '잘 삶'의 영위 그 자체가 개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잘 삶'의 영위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는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적용된다. 따라서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잘 삶'의 개념은 개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검증받은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자율적이면서, 동시에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Hong & Yoo, 2016)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Kim(2014)은 White의 교육목적론의 핵심개념인 '웰빙', 즉 '잘 삶'의 의미를 White의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후기 관점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가치 있는 활동'과 '관계'에 전심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몰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분석했다. Kim(2014)의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교육에서 말하는 웰빙이란 '가치있는 활동'과 '관계'에 전심으로 또 성공적으로 종사하는 일로 가득한 삶(Lee & Im, 2014)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는 행복심리학 분야의 거장인 Lyubomirsky(2007/2010)는 그녀의 2007년 저서(The how of happiness: A approach to getting the life you want)에서 헌신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몰입하는 체험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몰입(沒入, 영어: flow)의 개념은 미하이 칩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현재의 순간에 강렬하게 흡수되어 빠져있는 상태로, 나 자신을 잊은 채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완전히 몰두하는 것이다. '잘 삶'이란 "가치있

는 일에 전심으로 종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White의 주장(Kim, 2014)이 이같은 행복심리학에 기반을 둔 주장인지는 더 많은 규명이 필요하지만, White의 웰빙 개념이 행복심리학과 연계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White(2011/2014)는 개인의 삶에서 가장 만족스런 경험이 친밀감과 우정, 동료애 등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한 '가치있는 관계'가 만족스런 삶, 웰빙의 구성요소를 강조한 바 있다. 하버드대학의 70년 종단연구의 결과를 도출한 금세기 최고의 행복심리학자인 조지 베일런트(G. Vaillant)는 인간의 행복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생동안 유지되는 안정적인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행복심리학의 종단연구와 연계하면, White의 잘 삶 또는 웰빙의 개념이 여러 경험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행복심리학의 행복 개념과 연계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White의 웰빙을 기반으로 한 학교교육의 목적은 최근의 행복심리학에서 파생된 '행복교육'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웰빙(Well-Being)교육'의 개념 탐색

이상에서 고찰한 White의 웰빙 개념을 기반으로 하면, "웰빙교육이란, 학생 개인의 욕구와 관련되어 학생이 가지는 '검증된 욕구'와 '가치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학생 본인과 공동체의 '웰빙'을 추구하는 일에서 성공하도록 (불운은 어쩔 수 없지만,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생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웰빙교육'은 White의 잘삶의 구성요소인 '검증된 욕구'와 '자율성', '이타적 성향'의 세가지 구성요소(Hong & Yoo, 2016)를 가진다. 즉, '잘 삶을 위한 교육'인 웰빙 교육에서는 자아 탐닉적이며 이기적인 개인적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철저한 자아인식에 바탕을 두며, 자율성에 바탕을 둔 개인의 '검증된 욕구'의 충족을 강조한다. 따라서 웰빙교육에서 부과될 최고의 학교 교육의 목적은 '자아 인식'과 '자율성'에 두어야 한다. 또 동시에 나의 잘 삶은 타인의 잘 삶과 연계돼 있기에,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타인도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는 성향을 기르는 것을 표방한다. 이처럼 '가치있는 관계'의 추구에서 나타나

는 ‘공동체와 공유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필요한 ‘이타적 성향’도 웰빙의 구성요소(Hong & Yoo, 2016)로 반영되며, 이로 인해 웰빙교육의 내용에 ‘이타적 성향’도 반영돼야 한다.

White(2011/2014)는 교육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문직에의 진출 기회를 소수의 학생 선발로 줄이기 위한 대학 교육의 요구에서 벗어나야 함을 역설했다. 즉, 소수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누군가는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삶’을 추구하는 ‘웰빙’의 추구를 초등 및 중등교육의 교육 목적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White(1990/2009, 2011/2014)는 보편 교육으로 확대된 산업혁명 이후의 교육에서도,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개방된 전문직 교육으로 진입하는 학생 선발에 교육 목적이 있어왔음을 비판한다. 그래서 교육은 추상성이 높아 이 부분에서 성공할 확률이 아주 적은 ‘지식’ 추구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전개돼 오며, 교육 본래의 가치를 상실해 왔다고 현대교육을 비판했다. 즉, White(2011/2014)는 “학생이 인간의 잘 삶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질, 또는 성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학생이 잘 삶 자체의 구성요소에 충분하게 몰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의 목적이 변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White의 교육목적은 학습자가 주도성을 발휘하며 삶에서 웰빙을 추구하도록 한 ‘OECD 교육 2030’과 교육목적을 공유한다. White의 교육철학과 ‘OECD 교육 2030’의 교육목적 설정이 구체적으로 서로 어떻게 철학적 배경으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White의 ‘잘 삶의 교육’과 OECD의 ‘웰빙교육’이 다르지 않다고는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웰빙교육을 위한 실행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시기와 내용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학생의 성향을 기르기 위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최소화시키는 교육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White, 2011/2014). 또 학생의 웰빙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모든 개인의 검증된 욕구에 기반한 내용들로 “자신감, 건강한 생활, 관계, 위험, 사회적 다양성 등”의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2008년 영국에서는 이같은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웰빙(Personal Well-Being)’과목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한 바 있다.

한편, White(2011/2014)는 웰빙교육의 수업에서는 자율적

존재로서 내가 나의 독특한 삶의 길을 헤쳐가는데 ‘잘 삶’이란 무엇인가를 성찰하기 위한 개별학습, 잘삶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도록 허용하는 프로젝트 수업, 나와 타인의 잘삶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한 관점을 가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론 방법, 그리고 타인과 공유된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협동학습이 매우 좋은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또, 평가는 기존의 지식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다르게, 체계적인 기록과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해서, 학생 개인의 웰빙의 성취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학생이 전심으로 몰입하는 세계를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주기 위해, 또 하고 있는 일에 내재적으로 헌신하는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될 때 그것을 계속하는가? 등의 사항을 점검하여 기록해 줄 수 있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White, 2011/2014). White의 교육방법론은 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과정중심 평가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강조하는 패러다임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IV. ‘웰빙교육’의 실행전략으로서 가정과교육의 가치와 미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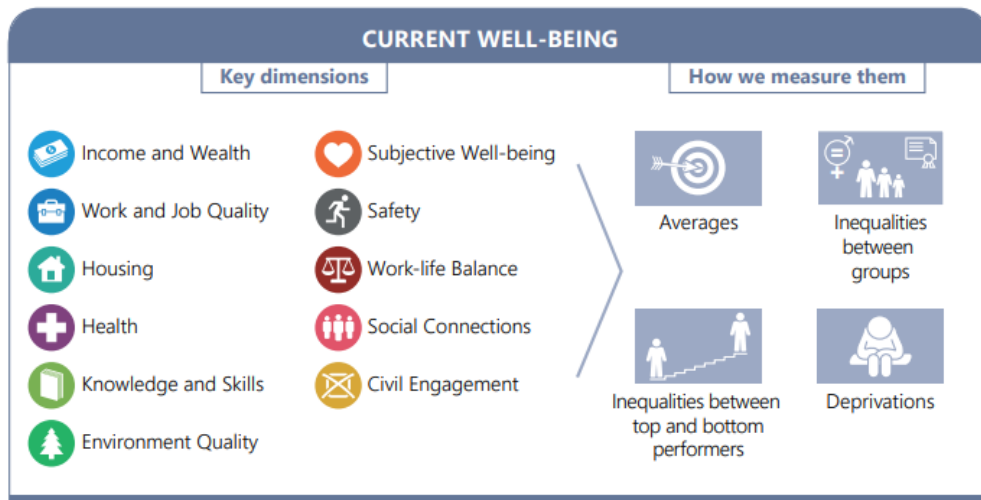
##### 1. 웰빙교육의 구성요소 탐색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부유함(wealth)이 개인의 행복에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또 OECD 주도로 수행한 BLI 지표에 대한 국가 간 웰빙 비교 통계 발표의 영향,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높은 청소년 자살율, 그리고 증가하는 따돌림 등 학생폭력 등의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는 시대적 배경 등이 학생 웰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Park & Woo, 2021). 2015년 PISA의 학생 웰빙 국제간 비교 통계는 물론이고, 범세계적인 교육 프레임으로 평가받는 ‘OECD 교육 2030’은 교육의 목적을 ‘개인과 사회의 웰빙(individual and collective well-being)’으로 정의하고, 웰빙을 “교육, 건강, 시민으로서의 참여, 사회적 연계, 안전, 삶의 만족도, 환경 및 삶의 질”을 포함하는 광의

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Woo, 2020).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었던 영국의 경우 1988년 이후 모든 학생이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정해졌으며, 2002년 교육법에 따라 모든 공립학교는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2008년부터 PSHE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의 일부로 중등학교(11세-16세)의 새 교과로 개인의 웰빙(Personal Wellbeing)과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의 과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Yoo, 2013). 개인의 웰빙(Personal Wellbeing) 과목에서는 자신감, 건강한 생활, 관계, 위험, 사회적 다양성 등에 관한 공부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과목이 White(2011/2014)가 언급한 웰빙, 즉 잘 삶의 많은 주제들과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영국의 경우 2013년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에서 핵심 교과와 기초 교과 간의 구분을 명료히 하고, 이들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들을 편제표에서 삭제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에 White가 소속한 런던대학교의 교육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는 새 교육과정이 교과 지식습득 중심이라고 비판하고, 대신에 건전한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목표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문제제기를 거세게 했다(So, 2015)고 한다. 이같은 영국의 교육과정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sup>1)</sup>은 웰빙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해 준다. 또 이와같은 영국의 사례는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교과의 성격으로 표방해 온 가정과교육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

Choi 외(2017)는 '웰빙(well-being)'이란 사람이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가정 하에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웰빙'을 의미해서, 경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소득, 직업, 공동체(사회적 관계), 교육, 환경, 정치적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삶의 균형 등 사회발전 및 개인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전반적인 요소를 포함한다고 했다. 이러한 웰빙의 요소들은 지난 2011년부터 OECD에서 지속적으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해 온 BLI(Better Life Index)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OECD에서는 2011년부터 How's Life? 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이후 2019년에 지표개편을 했으며(24개→43개), 개편은 불평등 측면의 지표 보완, 헤드라인 지표 구성 등의 내용이었다(Figure 3 참조).



Source: OECD(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highlights, March 2020. p. 4

Figure 3. BLI(Better Life Index) by OECD

- 1) 영국의 2013년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 중심의 교과의 성격을 갖지 않은 교육을 국가교육과정 편제표에서 삭제해 버리고, 각론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별도의 표를 통해 특정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법적 성격의 교육으로 안내했다(So, 2015). 예를 들면, '종교교육'은 초·중등의 모든 단계에서, '성과 관계교육' 등을 담은 personal wellbeing교육은 중등에서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비록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다는 규정이지만, White의 주장에는 역행하며, 현 시점에서 영국의 교육과정에서 웰빙교육은 축소된 상황으로 해석된다.

OECD의 BLI(Better Life Index)의 총 11개의 지표 영역을 고찰하면, 가정교과의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Lee & Chung, 2021). 2011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개정 가정과의 교육과정에서는 ‘대인관계능력’ 또는 ‘관계형성능력’을 교과의 핵심역량으로 강조했다. 또, 아직 결혼 연령과 거리가 먼 중학교 교육과정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사고할 수 있는 교육내용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1, 2015). 또 관계를 시작하는데 좋은 수단이 되며,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가치있는 활동이지만 다른 어떤 교과에서도 다루지 않는 식사하기와 옷을 선택하는 활동, 가족이나 이웃과의 공간 디자인을 통해 관계 형성이 필요한 내용은 전통적으로 가정과교육에서 다루어 온 교육의 내용요소들이다. White의 용어인 ‘검증된 욕구’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에서의 선택을 하도록 사고하는 교육내용 역시 가정과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온 소재이다. 왜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들 내용요소들을 교육과정의 내용요소로 반영해 온 것일까? BLI의 2020년도 우리나라 결과 분석에서 유추해본다.

우리나라의 BLI의 총합점수는 4.69점으로 OECD 평균(6.02)보다 낮아 28위(총 35개국)였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범주는, 시민 참여(7.66)의 1위, 주거(7.38) 4위, 교육(7.26) 9위, 직업(6.98) 16위, 소득(2.55) 및 안전(7.34)이다. 반면, 대기오염을 포함한 환경(1.62), 특히 궁핍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커뮤니티(0점)는 최하위였고, 일·생활 균형(4.46) 34위, 건강(4.1) 32위, 주관적 인생만족도(2.27)는 29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범주였다(OECD, 2020). 이와같은 OECD의 BLI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도모하기 위한 웰빙교육의 추진이 매우 시급함을 방증하였다. 또, 교육의 목적으로 웰빙에 초점을 둔다면, 어떤 측면의 웰빙 요소에 집중해야 할 지를 시사해 주었다. 마찬가지로 BLI의 지표를 교과의 교육내용에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형성능력’을 교과의 핵심역량으로 표방한 가정과교육이 웰빙교육의 핵심교과가 돼야 할 이유를 시사해 주었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IWG 제 10차 회의는 지난 2019년 10월 우리나라의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OECD 교육국장인 안드레아스 슐라이허는 2030년을 향

한 한국 교육에 대해 ‘학생의 성공’ 개념을 재정의 하며, 동시에 세계 수준의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 방향을 제안했다. 즉,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불안이 높고 삶의 만족도는 최저에 해당하므로, 이제 한국 학생들의 성공의 개념은 학업 성취에서 삶의 질 향상(웰빙)으로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같은 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 의장인 김진경도 미래 교육 체제의 방향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 중심의 학습체제’로 제시하고, 확장된 ‘역량’의 개념을 강조했다. 즉, 삶의 질(웰빙) 향상을 위한 ‘역량’이란, 자신의 삶에 바탕하여 문제를 설정·설계하여 필요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고,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사유와 공감’과 관련한 주체적 능력 일체로 정의했다. 다시 말하면, 지식 중심의 학력개념을 ‘할 줄 앎’, ‘살 줄 앎’의 ‘역량’개념으로 확장하고, 도전과 실패를 통해 ‘주인의 앎’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교육풍토 조성에 집중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October 23). 웰빙교육이 한국의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 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웰빙교육의 실행 전략으로서 가정과교육의 가치

학교교육에서 웰빙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은 다양한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웰빙’과 관련한 내용을 교과의 교육내용으로 다루는 가정교과를 전체 교육과정에서 웰빙의 역할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Lee와 Chung(2021)의 분석과 같이 가정과교육의 교육내용은 BLI의 거의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살 줄 아는 능력’, 그것도 ‘웰빙의 삶’으로 구성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역량 함양의 교육으로 한국 교육이 변혁되기 위해서, 이제 위계적 교과의 순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눈에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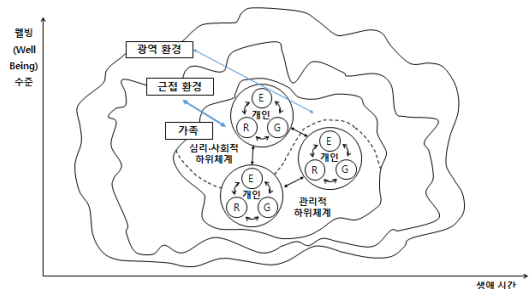
물론 White(2011/2014)는 웰빙을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만드는 방법은 여타의 다른 교과는 여전히 지식 교육에만 머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효과적인 전략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교과가 학생의 웰빙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또 교육 전체에서 지식 자체를 탐구하는 것을

성격으로 하는 교과를 모두 사라지게 하는 것도 균형적인 교육의 원래 목적과 거리가 있다. 그래서 한 번에 교육의 틀을 모두 웰빙을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학생 성공의 기준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이 경제적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학이나 장래 희망직업으로 들어갈 통로로서 여러 시험에서 성공하도록 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필수이다. 따라서 '웰빙교육'을 보다 빠르게,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강화하여 안착시킬 수 있는 실행전략을 찾아야 한다. 가장 좋은 실행 전략은 우선 이미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과이어야 한다. 동시에 해당 교과가 학생의 웰빙에 관한 내용을 교과 교육의 내용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어야 한다. 해당하는 교과를 찾아 웰빙교육을 위한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교과로 임파워먼트(empowerment)하는 전략이다. 우리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교과인가?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미 가정교과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존재하고 있다. 미래 교육에서 모든 학생이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키우고 싶다면, 전체 교육과정에서 학생 웰빙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정교육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한다.

가정교육은 교과의 성격 상 학습자의 생활과 삶을 기반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해 온 교과이다(Jeong, 2013; Jo, 2012; Kim, 2013; Kim & Wang, 2012; Wang, 2016; Wang & Kim, 2010, 2011). Alderfer (1972)는 인간의 행복을 욕구충족의 관점에서 고려했다. 인간은 특정한 욕구를 갖는 존재이므로, 해당하는 욕구를 충족하면 행복감을 느끼고, 요구 충족에 이르지 못하면 좌절 혹은 불행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Alderfer(1972)는 Maslow의 5단계 욕구이론의 한계점인 욕구 퇴행 현상을 비판하며, ERG 이론(Existence, Relatedness, Growth Theory)을 제안했다. ERG란 Alderfer가 제시한 인간의 3단계의 욕구로, 존재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를 말한다(Han & Lee, 2018). Wang(2016)은 가정교과는 삶을 기반으로 한, '삶 기반의 교과'이며 학습자에게 다양한 '행복 추구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Wang(2016)은 ERG 이론을 가정과 교육과정의 구성체계에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의식주생활 및 소비행동과 관련된

가정과의 교육내용을 존재욕구로,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한 교육내용을 관계욕구, 생애설계를 포함한 삶의 성장을 위한 교육내용을 성장욕구로 반영한 가정과의 이론적 개념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의 인간발달 생태학적 이론에서,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명유지 활동을 결코 멈출 수 없는 생명체이며, 인간은 자신과 관계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Gu, Lee, & Chang, 2020)라고 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이 살아있는 생애의 시간 내내, 욕구- Alderfer(1972)의 용어로는 ERG의 욕구, White의 용어로는 검증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며, 이것은 주관적 복지, 즉 웰빙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인간은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가장 먼저 미시적 환경체계인 가족과 상호작용하고, 가족도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여러 수준의 환경 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개인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을 구성해 간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공간인 생활환경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보다 큰 환경체계인 이웃이나 학교 등의 근접환경 및 국가와 자연환경 등의 광역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생의 만족과 복지 수준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삶이라는 생애시간 안에서, 개인이 일차적 환경체계인 가족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웰빙을,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여러 수준의 환경체계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웰빙, 즉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가 바로 가정교육이다. 이를 도해하면 다음의 <Figure 4>와 같다.



Source: Wang, S. S.(2021a, 2021b). Restructured p.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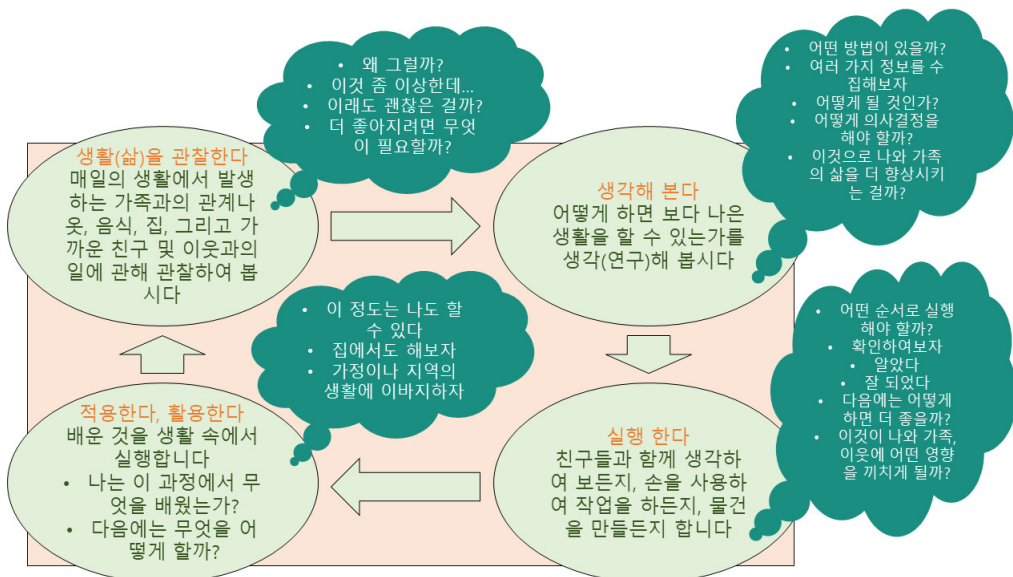
Figure 4. Characteristic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pplied John White's well-being concept and systems theory

개인과 가족이 주어진 삶의 시간인 생애시간에 개인 스스로와 자신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의 웰빙(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은 만족, 즉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 또는 가족원의 행동(action)을 요구한다. Alderfer(1972)의 용어로는 ERG의 욕구이며, White(1990/2009, 2011/2014)의 용어로는 반드시 ‘검증된 욕구’여야 한다. 검증된 욕구 충족을 위해 개인은 행동을 해야 하며, 행동은 사고 과정과 행동 과정을 모두 요구한다. 우선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활과 삶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관찰은 중요한 사고 과정이다. 다음 단계는 관찰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신중한 판단을 통해, 여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과정의 사고이다. 생각해보기의 단계에서 개인이나 가족은 충분한 정보 수집 과정을 거친다.

이 단계를 지나면 실행의 과정으로 이행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 사람은 일머리가 있어!”라고 표현하듯이, 실행력은 매우 중요한 인간의 역량이다. 실행의 단계에서 인간은 생각과 조사의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판단하고 결정한 전략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개인은 실행의 결과를 평가하고 장기 기억 속에 이번 과정의 생각이

나 일의 결과를 저장한다. 또는 더 나아가 개인이나 가족을 벗어나서 더 큰 환경체계에 적용하려는 의도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White의 용어로 이타적 성향의 발현은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매일의 생활에서 자신이 가진 검증된 욕구와 사회의 요구를 검증하기 위한 갈등과 판단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검증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고와 실행의 과정이 멈추거나 그 수행의 질이 떨어지면 인간의 생애 만족은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아예 삶의 시간이 멈추어 버린다. 따라서 다시 인간은 이 과정을 반복하고, 성장하기 위해 학습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고와 실행의 과정이 바로 가정 교과에서 함양하는 다양한 개인의 역량이다.** 이것은 사고과정이기도 하며 실행 능력이며, 의도적인 학습에 의해 습득할 학습에 해당한다. 가정 교과에서 학습의 목적인 웰빙, 즉 삶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가동되는 사고과정을 도해하면 다음의 <Figure 5>와 같다.



Source: Wang, S. S.(2021a, 2021b). Restructured p. 111

Figure 5. Thinking and action process for realizing life satisfaction(well-being)

## V. 마치는 이야기

보편교육으로 성격이 바뀐 교육의 목적은 이제 경제적 논리에 근거해서 소위 좋은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상급학교 진학에 적절한 소수의 학습자를 뽑기 위한 입시위주의 논리에 휘둘리는 대신에, 학습자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앞에서 고찰한 범세계적인 교육담론을 반영하는 'OECD교육 2030' 프로젝트와 White(1990/2009, 2011/2014)의 웰빙의 교육목적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육비전 2045와 전략'에서는 사회와 개인의 웰빙(well-being), 즉 '잘 삶'이 교육의 목적으로 변형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특히 한국의 '교육비전 2045와 전략'(Choi et al., 2020)에서는 초연결사회로 변화되는 미래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의 영향력이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기에, 미래형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원(친구, 동료, 이웃)이 되기 위한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개인의 정서·사회적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인간의 삶을 기반으로 한 생활교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개인 및 가족의 행복 추구를 교과 성격으로 표방해 온 가정과교육(Wang, 2016, 2021a, 2021b; Wang, Kwon, Kim, & Chung, 2011)은 미래사회의 교육 목적을 교과교육의 목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미 수행해 왔지만, 오히려 사회적 발전의 수준이 가정교과 성격이 지향하는 교육목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이유에서 그동안 교과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정과교육의 역사를 돌아보면, 1979년 미국의 Brown과 Paolucci교수가 가정학의 성격을 비판과학적 관점으로 규정한 이래 이들의 관점이 가정과교육의 교육과정의 철학으로 강조되었다. 이에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현 시점까지의 20여 년 간의 한국 가정교육학 전공 분야에서는 가정교육학이 비판적 관점이나 또는 기술적 관점이나에 관한 거센 논쟁, 특히 '실천'의 개념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사회재건 중심의 재개념주의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강화하던 산업사회 후기의 상황에서 Brown과 Paolucci교수의 가정과교육에 대한 관점은, 그 당시의 교육과정의 역사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적절한 방향 제

시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의 인류사회는 홈 루덴스(Home Ludens)와 메타 사피엔스(Meta Sapiens)가 등장하는 초연결사회, 나노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학문도 진화하며 발전해야 함을 고려하면, 가정 교과의 성격은 그 이전 시기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 담론으로 개발되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 새로운 가정과교육의 담론은 White의 교육목적론과 범세계적 교육담론을 반영한 'OECD교육 2030', 그리고 현대 가족의 생활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다는 인간발달의 생태학적인 시스템 이론을 기반으로 했다. 또 행복은 행동처럼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이같은 의도적인 행복의 학습이 행복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장시킨다는 20세기 후반의 행복심리학의 패러다임을 반영했다. 가정과교육에서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복의 요소들, 즉 감사성향, 공감능력,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행복의 수준에 관련된 역량을 의도적으로 학습하면(Jo, 2012; Kim, 2013; Kim & Wang, 2012; Wang & Kim, 2010, 2011), 학습자의 주관적 행복감이 향상된다(Jeong, 2013)는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가정과교육의 행복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지하고 있다.

해당 교과교육학에 절대적으로 옳은 단 하나의 이론만이 존재하는 것보다는, 여러 담론이 있어야 학문이 머물지 않고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연구는 가정교육학의 '행복 교육' 및 '웰빙교육'의 담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개발하여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4차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는 교과, 학문,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오랜 논쟁을 접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는 어느 한 가지 사조를 반영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균형과 조화를 강조한 바 있다. 가정과교육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담론에도 이같은 4차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했던 합의에서처럼 어느 하나의 담론만이 옳아서 다른 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와는 통합 연구도 거부하는 극단적 사고가 이제는 중단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

이 연구는 위드/포스트코로나 사회에서 가정과교육의 미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교육의 목적을 설명한 선행 연구의 고찰에서 출발했다. Lee(1994)는 만약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추구하면, 그 교육의 필요를 다른 차원 높은 가치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함을 지적했다. 교육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즉 교육이 수단이 되는 보다 높은 가치, 예컨대 인생의 목적, 행복의 상태, 신의 의지, 국가의 발전 등과 같은 매우 고답적인 가치와 연결하여 생각해야 하며, 교육은 그것들에 대해 결코 목적의 위치에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즉, 교육은 다른 가치와의 관계에서 수단적 가치를 가진다는 교육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교육이 수단의 가치가 되어 기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OECD(2021)에서는 21세기 교육의 목적을 개인과 사회의 웰빙으로 규정하였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교육의 목적은 행복한 사람을 만들고자 함이며, 행복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이 보다 차원 높은 가치에 대해 수단적 가치를 가진다는 Lee(1994)의 견해와, 또 교육이 웰빙과 인간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면, ‘행복교육’ 및 ‘웰빙교육’의 목적에 수단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는 가정과교육의 교과로서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인간은 먹거나 입거나 살 집이 없거나, 또는 이를 누리기 위한 돈이 없거나, 궁극적으로 자신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갖지 못하면,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없고, 그래서 절대로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웰빙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결국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웰빙을 통한 행복의 요소는 의도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다. 먹거나 입는 등의 일상의 생활이 필요없는 AI 로봇과 공생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미래 학습자에게 ‘인간다움’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학습의 영역은 인간만이 행하는 인간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은 궁극적인 인간의 행복, 즉 ‘잘 살기’ 위해 필수적인 웰빙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교과로서, 또 행복도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한다는 행복심리학자들의 주장한 바대로 인간 행복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소를 광범위하게 다루기 때문에, 전체 교육과정에서 교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웰빙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교과로서 전체 교육과정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 사료된다.

가정교과는 아직도 굳건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논리가 장악한 교육분야에서 오랫동안 주변적인 교과, 교육과정에서 위

계적 순위를 정하자면 늘 아래 위치에 속해서 언제나 소외된 교과였다. 그러나 급속한 AI문명의 도래 및 코로나19라는 미완의 숙제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운명으로 한 초연결의 미래 사회에서는, 학문영역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포스트/위드 코로나19의 현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교육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축의 변화가 교육의 저변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 축의 변화가 교육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전개될지,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존재할지 전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한 바와 같이 로봇에게 간단한 심부름을 대신 시키는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우리의 현재에 빠르게 도래할 것이라고 누가 예측했는가? 상상한 세상이 도래하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잘 사는 역량’, 즉 ‘웰빙과 행복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의 도래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지도 모른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도달하려는 목표(가정과교육의 성격과 목표)와 지점(가정과교육의 교육내용)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어서는 안된다. 더 좋은 목표와 지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하여 제시한 가정과교육의 새로운 담론은 생각없이 맞는 미래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기 위한 작은 시도의 하나로 제시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이 연구에서 개발, 제시한 웰빙교육의 담론을 반영한 이론적 개념들이 지속적인 경험적 연구로 검증되어, 가정과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기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 Alderfer, C. P.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New York: Free Press.
- Choi, S. D., Kim, J. S., & Choi, D. S. (2020).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 [100 years of liberation, great transformation plan for Korea's Education System to realize an innovative and inclusive nation] (No. 20-62-01). Sejong: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 Sciences.
- Choi, S. J., Kim, E. Y., Kim, H. J., Park, K. Y., Park, S. W., Lee, S. E., & Chang, A. M. (2019). *A study on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future-oriented competency-based education (No. RR 2019-06)*.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Choi, S. J., Lee, J. D., Kim, E. Y., Kim, H. J., Paik, N. J., Kim, J. M., & Park, J. H. (2017). *A study on OECD Education 2030 project: Analyzing validity of OECD competencies framework and exploring practices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in South Korea (No. RR 2017-18)*.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Gu, N. H., Lee, J. Y., & Chang, I. Y. (2020). Exploring of Bronfenbrenner's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applying its theoretical model to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9(3), 1-35. doi:10.24826/KSCS.9.3.1
- Guillen, M. F. (2020). 2030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2030: How today's biggest trends will collide and reshape the future of everything]. (J. H. Woo, Trans.). Paju: Leadersbook(Woongjin thinkbig). (Original work published 2020).
- Han, H. R., & Lee, J. M. (2018). A study on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of the adolescent's subjective happiness: Focused on Alderfer's ERG theory.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36(1), 103-117. doi:10.7466/JKHMA.2018.36.1.103
- Hong, J.-H., & Yoo, J.-B. (2016). White's well-being edu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re, worthwhileness, and knowledge.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4(3), 51-67.
- Jeong, J. W. (2013). *The influenc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subjective happiness: With priority given to the unit 'understanding of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buk, Korea.
- Jo, S. M. (2012). *The effects on the prosocial behaviors in instruction of the unit, 'caring of family'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education in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buk, Korea.
- 관계부처합동 [Joint Ministries] (2020).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과 핵심과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 [Artificial intelligence era the direction of education policy and key challenges]. Sejong: Author.
- Jung, C.-M. (2013). The concept of a well-being as an aims of education: Focused on a communitarian idea. *Philosophy of Education*, 51, 149-171. doi:10.22918/pesk.51.201312.149
- Kim, H.-B. (2009). The integral interpretations of the concept of well-being and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4, 23-43. doi:10.15754/jkpe.2009.44.002
- Kim, H.-B. (2014). The change of conception of well-being in White's view.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6(3), 215-235.
- Kim, H. H. (2020). *미래 · 공생교육: 코로나 이후의 미래교육* [Future and Symbiosis Education: Future Education after COVID 19]. Seoul: Sallimteo.
- Kim, S. G., & Wang, S. S. (2011). Development & the analysis of application effect of middle school HE text teaching-learning lesson plans for character education in cultivating gratitude disposi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2), 17-35.
- Kim, S. H. (2013). *The influenc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n middle students' developing empathy: With priority given to the unit 'understanding of family values' for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buk, Korea.
- Lee, D.-H. (1994). *교육정의론* [Arguments for Educational Justice]. Seoul: Goryeowon.
- Lee, J.-H., & Im, B. (2014). Education for work pertinent to personal well-being - On the basis of a vision of activity societ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28(2), 41-65. doi:10.17283/jkedi.2014.28.2.41
- Lee, J.-Y., & Chung, M. K. (2021). An analysis of Practical arts curriculum in terms of well-being of OECD 'education 2030' project -Focused on the field of home life-.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34(4), 43-63. doi:10.24062/kpae.2021.34.4.43
- Lee, M. S. (2004). Looking at well-being in terms of lifestyle: Healthy or trend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3(3), 477-484.
- Lee, S. E. (2019). Characteristics of a new competency education framework in OECD education 2030 project and its

- implication to Korea's 2015 revise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9(4), 123-153. doi:10.20306/kces.2019.29.4.123
- Lyubomirsky, S. (2010). *How to be happy: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The how of happiness: A scientific approach to getting the life you want]. (H. K. Oh, Trans.). Seoul: Jisiknomad.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 Ministry of Education (2011).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Publication No. 2011-361, Separate volume 10). Seoul: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5).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Publication No. 2015-74, Separate volume 10).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9, October 23). Korea-OECD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opening. *News Article*, pp. 1-33.
- MunHwa Ilbo (2020, May 4). 19 new trends in the post-covid-19 era. *MunHwa Ilbo*. Retrieved From <http://www.munhwa.com/news/view>
-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21). *우리말샘 '웰빙'* [Woorimalseam 'well being']. Retrieved from [https://opendic.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_top=query&query=%EC%9B%A0%EB%B9%99](https://opendic.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_top=query&query=%EC%9B%A0%EB%B9%99)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highlights, March 2020*.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betterlifeindex.org/#/111111111111>
- OECD. (2021).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 note OECD learning compass 2030*.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compass-2030/OECD\\_Learning\\_Compass\\_2030\\_concept\\_note.pdf](http://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compass-2030/OECD_Learning_Compass_2030_concept_note.pdf)
-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2021). *'Well-being'*. Retrieved From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well-being?q=well+being>
- Park, Y. J., & Woo, M. S. (2021).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educational activities on student well-being: From the eudaimonic perspectiv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1457-1479. doi:10.22251/jlcci.2021.21.4.1457
- Park, Y. S., & Glenn, J. (2020a). *세계미래보고서 2021: 포스트코로나 특별판* [World future report 2021: Post-covid special edition]. Seoul: Bussiness Books.
- Park, Y. S., & Glenn, J. (2020b).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World future report 2035-2055]. Seoul: Kyobomungo.
- So, K. H. (2015). Things intended and realized in the 2013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Significance and limit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3), 199-220.
- Wang, S. S.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ed with the future social change: Focusing on the new recognition of the characteristic as the subjects for life and happines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3), 17-32. doi:10.19031/jkheea.2016.09.28.3.17
- Wang, S. S. (2021a). *가정 교과교육론: 교육과정 · 수업 · 평가 · 기록의 시스템화 이해 중심* [Educational theory of home economics subject: Focused on understanding systematized of curriculum · instruction · evaluation · record]. Seoul: DodoBooks.
- Wang, S. S. (2021b). In the with/post-COVID era, the role and futur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iscourse of 'well-being education' centered on 'OECD education 2030' and J. White's view of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2021 Spring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pp. 23-53). Seoul: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 Wang, S. S., & Kim, S. G. (2010). Character education and application for cultivating gratitude disposition and car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2010 Summ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pp. 133-159). Seoul: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 Wang, S. S., & Kim, S. G. (2011). The character educ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focus on gratitude and caring.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7(1), 117-142.
- Wang, S. S., Kwon, Y. J., Kim, J. W., & Chung, M. K. (2011). Curriculum development (draft)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education for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subjects according to the 2009 revised curriculum. In *2011'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 curriculum revision plan study 1st workshop materials collection* (pp. 70-91).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 and Evaluation.
- White, J. (2009). *교육목적론 [Education and the Good Life]*. (J. H. Lee, & H. B. Kim,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White, J. (2014). *잘살의 탐색: 학교교육의 새로운 목적 [Exploring Well-Being in Schools]*. (J. H. Lee, & H. B. Kim, Trans.). Paju: Kyoyookwahak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Woo, M. S. (2020). Educational growth of innovation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Focusing on competenci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641-663. doi:10.22251/jlcci.2020.20.20.641
- Yoo, H.-J. (2006). Consumer consciousness toward well-being trend and well-be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2), 261-274.
- Yoo, J. B. (2001). Hirst's social practices view of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content.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25, 73-89.
- Yoo, J. B. (2004). Rationalistic liberal education: An educational and christian critique. *신앙과 학문 [Faith and Disciplines]*, 9(1), 241-266.
- Yoo, J. B. (2006). Hirst's practical reason and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6, 65-82.
- Yoo, J. B. (2013). White's view on education for well-being.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5(3), 83-105.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과교육이 필수 교과로서 어떤 가치를 표방하여 필수교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위드/포스트 코로나시대로 상징되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문헌 고찰을 통해 진단했다. 또,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목적을 규명한 ‘OECD교육 2030’ 프로젝트와 한국의 ‘교육비전 2045’를 고찰했다. 또, 영국의 교육철학자인 White의 교육 목적론을 고찰했다.

그 결과, 미래사회의 교육 목적은 사회와 개인의 웰빙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같은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 웰빙 과목의 개발과 같은 노력을 여러 국가들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웰빙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행전략이 가능하지만, 가장 손쉬운 전략은 이미 교과로 존재하는 가정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과교육이 필수교과로서 가지는 주요 가치는 사회와 개인이 웰빙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함양시켜 주는 교과라는 점에 있다고 규명했다. 이것은 가정과교육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은 ‘OECD교육 2030’에서 웰빙의 기준이 된 OECD의 BLI를 거의 모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통적으로 가정교과가 ‘삶 중심의 생활교과’이며,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개인 및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행복추구역량’을 함양해 온 행복 교과의 성격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행복 및 웰빙교육’으로서의 담론을 발달시켜 가는데 필요한 가정과교육의 이론적 개념들을 개발하여 제시했다. 또 웰빙교육을 실행하는 가정과의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나타내게 될 고유한 사고 및 실행 과정을 나타내는 이론적 개념들을 개발하여 제시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같은 가정과의 웰빙교육의 담론이 더 많은 경험적 연구로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논문접수일자: 2022년 3월 15일, 논문심사일자: 2022년 3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3월 28일